

♡1 신체화된 이성, 이중개념주의

과거 계몽주의엔 우리가 이성의 존재이고 얼마든지 지식을 배우면 지성이 되리란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대중에게 사실을 알려주면 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변화하리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체계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특정한 방향으로 사고하도록 굳어있다. 이에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1941~)는 구계몽의 시대가 끝났다면 신계몽을 주장한다. 우리의 이성은 무의식화되어 있고 신체화되어 있으며 감정과 공감과 맞물려 있고 은유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신체와 의식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실제 이성은 우리의 몸과 뇌와 실제 세계 내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감정을 담고 있으며, 프레임과 은유와 영상과 상징에 의해 구조화된다.”** 인간의 인지체계를 과학으로 새롭게 접근하려는 태도가 요구되는데, 이것이 신계몽이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인지적 편향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인지 편향을 이중개념주의가 잘 보여준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어색할 수 있는 정반대의 가치를 둘 다 추구하며 살게 된다. 토요일 밤에 질편하게 보낸 뒤 일요일이면 경건한 모임에 참가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토요일 밤 가치 체계와 일요일 아침 가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자신을 위선자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관의 전환은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며, 그가 서로 다른 세계관을 동일한 쟁점 영역에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두 세계관은 같은 뇌에 존재하지만 서로 겹치지 않는 삶의 영역에 연결”**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나는 변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떤 분열과 모순이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된다.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꾸미면서 합리화한다. 과거에 인류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상황을 정당화하고자 신화와 설화들을 만들어 냈듯 우리들 또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근거 짓고 설명하려고 한다. 전통, 관습, 신화, 역사, 민족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구속하지만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한다. **“문화적 서사는 우리 뇌의 불박이 가구의 일부”**이다. 우리의 뇌는 끝없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성해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다. 구계몽은 우리가 이성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태도였다면, 신계몽은 자기 서사를 인정하되 그걸 자각하려는 태도이다.

♡2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평소에 문법 구조나 어휘나 추론들을 까다롭게 의식으로 따지지 않고 대화한다. 우린 반사작용을 하듯 말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에 주목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언어들을 쓰느냐에 따라 생각의 방식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바뀐다.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던 나의 언어습관이 결국 내 삶을 건축한다.

언어는 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 그 이상의 것이다. 언어는 마음의 문이다. 언어는 사고활동에 사용되는 개념 체계를 조직화하며, 우리는 언어를 통해 개념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

언어는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언어가 좋은 나쁜 뇌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는 그저 감정을 표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언어는 그저 감정을 자극하거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서나 한 나라의 생존에서 감정이 수행하는 역할을 바꿀 수도 있다.

언어를 통해 감정의 활성화를 조절할 수 있고 좀 더 세련된 언어습관은 자신의 정신을 그렇게 빚어내게 된다. 내가 어떤 말을 쓰는지 중요한 이유다. 어떤 단어를 싫어하더라도 자꾸 사용하거나 들으면 내 머릿속에서 그 언어는 활성화되고 강화된다. 반복해서 동일한 언어를 듣는다면 그 언어의 관점에서 세상을 인지하게 된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은 사용빈도가 많아질수록 더 강화된다. “‘강화’는 시냅스에서 신경전달자를 위한 화학적 수용자의 수가 물리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별 생각 없이 하는 언어습관이 뇌의 회로가 되면서 인지체계를 만들어낸다. 언어와 뇌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인지는 감정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면 내 상태가 변화한다.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 과거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그저 고통스러웠던 과거도 다르게 해석할 줄 아는 언어로서 이야기를 만들게 되면 사뭇 다른 의미로 내 기억 속에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언어는 기억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로 구성한다.

언어는 도덕적 힘을 지닌다. 그래서 언어는 사람을 가장 선하게 이끌 수도 있고 가장 악하게 이끌 수도 있다. 기억은 결코 단순히 ‘저장되지만’ 하지 않으며, 언제나 새롭게 창조된다. 언어는 단지 기억을 환기하기만 하지 않는다. 언어는 기억을 변화시키고 형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역사—과거의 이야기—를 변화시킨다.

♡3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차이

부모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면서 우리에게 뭘 해야 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명령하고 가르친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도 맛보았지만 또한 상처와 슬픔도 겪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정에서 맨 처음 지배를 경험”한다. 가정에선 긍정의 통치와 부정의 통치가 한꺼번에 이뤄진다. 부모들은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애정을 듬뿍 주면서 긍정의 통치를 실시하는 한편 때로 때리거나 죄의식과 수치심을 주입하면서 부정의 통치도 시행한다. 어릴 때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일차 은유를 형성시켰다. 자신의 어떤 행동과 부모의 불쾌한 제지를 경험하면 그것은 나쁘다고 인지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만일 평안을 정기적으로 다른 어떤 것 X와 함께 경험한다면, [도덕성은 X이다] 형태의 은유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덕성은 보통 깨끗하고 밝고 따뜻하다는 은유와 연결되어 작동한다. 어릴 때 밝고 따뜻하고 깨끗한 걸 좋다고 배우고 그런 언어들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때 생겨난 도덕성과 일차 은유를 바탕으로 무의식중에 판단하며 살아간다.

또한 도덕성은 벌과도 연결된다. 우리가 응징과 복수를 좋아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릴 때 옳고 그름을 배우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확연히 갈린다. 보수주의자들은 대개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랐고 벌과 응징을 도덕성의 은유로 갖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벌은 좋은 것이고 벌을 받지 않는 건 도덕의 실패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인지하고 판단하면서 응징과 절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왜 보수주의자는 응징을 좋아하는가? 엄격한 아버지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벌을 주지 않는 것은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적 실패로 간주된다. 더욱이 벌의 핵심—즉, 물리적 ‘규율’—은 아이들에게 심적으로 절제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절제는 도덕적인 사람을 양성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보수주의자는 엄격한 아버지 모형을 갖고 절제와 벌을 도덕의 규칙으로서 인식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자애로운 부모 모형을 갖고 있다. “자애로움은 감정이입과,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책임,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함”으로서 진보주의자들은 타인을 처벌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하면서 그를 둘러싼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그 결과 보수주의자가 사회규칙을 어긴 사람에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을 도덕으로 여긴다면, 진보주의자는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애롭게 대하는 걸 도덕으로 여긴다. 자유란 말을 들어도 보수파들은 ‘경제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떠올린다.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경제이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경제자유와 자신의 종교를 지키고 타인들에게 전도하는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자유란 말을 들으면 권력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라든지 동성애의 자유 같은 진보성을 띤 해석을 하게 된다. 이처럼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인지체계가 다르다. 보수주의자는 직접 인과관계로 세상을 파악한다.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보수의 대답은 악한 사람들이 원인이고 그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주의자는 맥락과 유기성을 헤아리며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빈곤과 차별, 교육 부재 등등의 답을 내놓는다. 이런 차이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인지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이나 서사, 사고 양식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정의할 때 그들의 정체성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관이나 서사, 사고양식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의 뇌의 일부이며, 따라서 뇌 구조의 많은 다른 측면이 또한 변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4 보수주의의 세계관

보수는 나쁜 게 아니라 진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조건에 따른 성향이다. 보수는 세상을 인식하는 토대가 진보와 좀 다른 것일뿐이다. 보수에게 도덕성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질서와 복종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 권위는 본래 선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세계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복종 명령을 내리고 악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힘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둘다 지니고 있는 합법적인 권위라고 가정한다. 권위의 소유자는 ‘결정권자’이다. 합법적 권위에 순종하는 데에는 개인적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책임과 절제는 보수의 최고 미덕이다. 순종은 벌을 통해 강제된다.

시장에 대한 인식도 보수주의는 다르다. “진보주의자는 이상적으로 시장이 도덕적이어야 하며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보수주의자에게 시장은 권위의 기관으로서 사람처럼 받아들인다. 시장은 합법의 권력을 지니고 우리에게 규율을 부과하며 절제를 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에겐 “벌을 내리는 사람으로 의인화”된다. 부유함은 시장 질서에 복종하고 자신의 욕심을 절제한 결과이며, 이것은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보수주의자들이 양극화되는 사회구조에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시장에 개입하는 걸 내켜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고 체계의 논리에 따르면, 만일 당신이 변성과 영화를 누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제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도덕적일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의 가난은 당연한 것이다. 만일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벌지 않는 것을 준다면, 이들은 의존적이 되어 절제력을 잃으며, 이로 인해 도덕적인 법이나 합법적 권위에 복종할 능력도 잃게 된다는 귀결이 나온다.

시장은 그 자체로 선하고 공정하며 권위를 지닌 기관이고, 우린 자신의 행동에 따라 평가를 받을 뿐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의 인지체계는 작동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절제를 배우고 법을 준수하면서 부를 추구해야 하는데, 인간은 좀처럼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법을 저지르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수주의자는 생각한다. “시장은 그러한 절제력을 기른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절제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생기더라도 복지를 해주면 도덕이 무너진다고 보수주의자는 인식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에 따라 결과를 받을 뿐이고, 지금의 처지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의 인지체계는 판단한다.

♡5 진보가 보수에 맞서려면 신계몽이 요구된다

범죄와 테러는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전술로서 써먹히고 있다. “‘테러’는 언급하기만 해도 공포 반응을 활성화하며, 공포는 보수적 세계관을 활성화”시킨다. 보수가 전쟁 은유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다. 사회 전체에서 적을 상징하고 전쟁을 하는 은유가 강해지면, 개개인이 섬세한 사유를 못한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되는 사고방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비판하거나 지도자의 결점을 얘기하면 “비애국” 또는 “적”이 된다. “보수주의자가 대중에게서 더 많은 공포심을 생성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진보주의자는 더 많이 억압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보수 세력은 ‘북풍’과 범죄를 집중보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분법으로 사고하도록 조장한다. 보수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해왔다.

진보주의자들은 다른 세계관, “감정이입과 책임, 희망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조지 레이코프는 주장한다. 타인의 얼굴표정과 근육에 나타나는 작은 차이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이 어떤 기분인지도 느낄 수 있”다. 공감하는 능력과 더불어 “협동을 위한 배선도 이미 깔려 있”다. 신계몽은 바로 공감과 책임이 도덕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진화에 연결되었다는 이해를 요구한다. “신계몽은 또한 우리에게 감정이입과 책임, 자성(自省), 연대의식을 계발하도록 요구하며, 이들에 근거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뇌 부위가 활성화되도록 언어와 사회조건을 재정비하는 것을 일컫는다.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들과 공존하면서도 자연까지 헤아리려는 의식, 이것이 신계몽이다.

여태껏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의 프레임에 휘말리면서 공포가 활성화되어 분노와 응징을 유발하는 언어들을 진보주의자들은 사용해왔다. 책임과 협력과 공감과 연관된 은유를 퍼뜨리면서 정말로 우리 삶에 이로운 언어들로 여론의 판을 짜야 한다고 레이코프는 귀뜸한다.

기억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힘은 다수에게 있다. 만일 수만 명의 사람이 동일한 것—미국적인 가치에 근거하고 사실로서 울리어 퍼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그러한 개념이 강력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결코 사적이지 않다. 민주주의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는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하라. 뇌의 변화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할 때 일어난다.